

지 상 범 석

인연도 속성 됩니다

“서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성불의 뿌리 키우는 과정입니다”

은 우리가 살아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생각 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될 해야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녀의 대학 가는 것을 봐야하고 그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하고 또 집을 사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닐까.

그럼 이러한 소원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서원이나 발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서원(誓願)이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 하는 것이고 발원(發願)은 말 그대로 원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먼저 발원을 하고 다시 서원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를 해야 합니다. 늘 외우는 사홍서원은 불자이면 누구나 한결같이 세우고 실천해야 할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홍서원을 총원(總願)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이 공통적으로 갖는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다 제도 하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워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행입니다. 우리도 이 사홍서원의 실천을 불교신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같이 큰 원만을 세우고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일 수는 없습니다. 원을 세우는데도 근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공부에 따라 작은 서원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발원을 해도 그것이 실천될 수 없으면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욕심이 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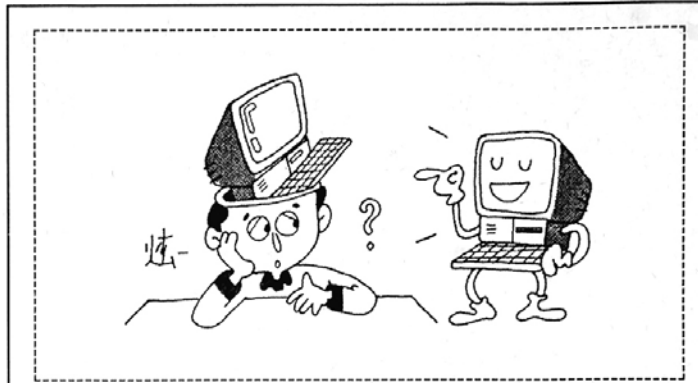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거룩한 서원을 세워 두고 '나는 이런 원을 세웠으니 언젠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믿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원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노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자 여러분은 대부분 오계를 수지 하겠을 겁니다. 오계를 받아 지나는 것도 다섯 가지의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켜 불보살의 길을 걸겠다는 서원인 것입니다. 그 서원의 굳은 마음을 보이기 위해 살을 태우는 아픔까지 감내하는 연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비의 자국이 다 없어지기도 전에 다섯가지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원은 산산히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으로 불음주의 계를 지키는 것도 불자로서 한 걸음 앞장선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세우되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세우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간단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노력의 삶이 바로 불자의 삶이고 성불의 뿌리를 키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세우는 이 원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놀랍게도 많은 힘을 줍니다. 더러는 자신이 놀랄 정도로 큰 힘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피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나는 해인사에 살던 어린때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리란 원을 세우고 일년간 기도를 한적이 있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인연이 그 원을 이뤄 주더군요. 그런데 그 인연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원을 세운 순간에 그 인연의 씨앗도 함께 성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을 세우고 매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것이 이뤄질 인연도 속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문을 열어 출가 하시는 그 순간에 이



물리학은 '색(色)'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색'과 '물리적 진공'과의 관계를 밝히므로써 반아심경의 내용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미흡한 데가 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말하기를 반야로 비추어 볼 때 '오온이 개공'이라 하였으니 깨달기 전에는 '공'을 관해 아무리 분별지로 이해 한다고 하더라도 '공'을 체득할 수 없었지만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이 지도(地圖)를 갖고 있는 것만큼 '공'을 깨닫는데 도움은 될 것이다. 적어도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대상이 아닐지라도 '물리적 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에 관해 계속 접근해 보기로 하자. '야'도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음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번엔 '야'의 바탕이 되는

은 다르기 마련이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다르면 다른 답을 주듯이 무의식에 깔린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도록 선택한 사람은 선택한 행동을 하도록 환경과 교육에 의해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타고난 유전형질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DNA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로 컴퓨터에 불과할까? 유전자와 무의식에 기록된 정보가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사람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틀림이 없다.

한 사람에게서 그가 받은 교육의 내용을 얼마나 지워나갔는지 어떻게 될까? 의식과 무의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치 일 설명했지만 이번엔 '야'의 바탕이 되는

모든 것의 근원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 나왔듯이 마음의 진공에서 '我' '수상행식' 생겨

마음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마음은 의식(意識)과 무의식(無意識)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의식'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끊임없이 간여하는 '무의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6식을 뜻하고 무의식은 제7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서는 편의상 불교에서 말하는 제8식과 그것을 넘어선 일체 마음을 모두 포함하여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기로 하자.

사람의 의식구조는 컴퓨터와 너무나 흡사하다.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따라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그렇지 않다. 과거의 경험과 주위환경 및 받은 교육에 의해 의식구조가 거의 결정된다. 마치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명령체계에 따라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듯이 사람도 무의식에 기록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격과 습성을 지니게 된다. 버터와 치즈에 맛들린 사람과 된장과 감자에 맛들린 사람의 생각과 행동

리직 진공이 남듯이 사람에게서도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면 정신적 진공이 남지 않을까? '야'가 기억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야'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불교에서는 '아공'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벗어난 이 '야'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일체의 욕망, 환경과 교육 및 경험에 의해 붙들려진 것을 벗어난 '야'는 물리적 진공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도 없이 글자 그대로 마음이 비었다는 뜻이다. 텅비었으니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것도 없다.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빈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도 없다는 뜻이다.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가 나왔듯이 마음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는 '마음의 진공'에서 '야'가 나와서 마음과 수상행식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도 마음도 없다면 그것을 홀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주'와 '야'의 근본은 분별지로 헤아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인 것이다. 적어도 반아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러한 뜻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이루고야 말겠다’ 믿음·노력·실천 없으면 욕심 “초발심 변하면 다시 세우는 원도 쉽게 무너져”

살아가며 갖는 여러 소원들도 중요하지만 불자로서 하나의 발원을 하고 서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생노병사의 큰 의문을 풀기위해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대목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출가의 마음이 부처님의 서원 그 자체입니다. 생노병사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초월, 즉 해탈하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었고 그분은 6년의 고행으로 마침내 그 서원을 이뤄 정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 보살님들도 다 서원을 세우시고 그 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 많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수천안으로 중생들을 제도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고 48가지의 큰 원으로 중생을 구제 하겠다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그리고地藏보살님은 지옥계의 중생마저 다 성불하도록 한 후에 부처가 되겠다는 비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서원이야말로 법계 중생의 일체적인 성불을 향한 커다란 서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그러한 원을 세우고 이루려는 명

입니다.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지나친 원을 세우는 것은 여러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절에 나온 사람은 반야심경을 다 외우는 것을 발원해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고 나면 그 뜻을 이해하는데 힘을 세우고 법문도 듣고 책도 읽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발원하고 서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는 것이 보살에 이르고 부처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발심이란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면 다시 세우는 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이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결같이 실천해 나가는 것,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보살님들이 각기 원을 세우고 (이걸 別願이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에 우리 중생의 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원이 거룩하고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중생의 구제

여러분의 근기가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불법에 귀의하는 마음이면 오계를 수지할 마음도 갖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계의 향목들을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이기 때

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데 있어 무조건 불살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죽음을 처한 목숨을 최선을 다해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지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최대한의 노력이 계를 지키는 과업입니다. 불음주의 계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님들이야 당연히 불음주의를 해야겠지만 재가자들은 어려움이 큰 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지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을 꼭 마셔야 할 일이 있으면 마시되 이성을 잃어서는 안되고 그 술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에 이미 서원의 삶 시작됐으니 공부 쌓아 결실 맺으세요”

미 무상정등정각의 새벽별이 무량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 인연의 만남, 바로 그 지리가 서원이 이뤄지는 열락의 잔치마당입니다. 나는 이 잔치를 각원사 불사를 하며 절실히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삼보에 귀의 하는 것에서 이미 서원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실천수행하는 과정과정에서 좋은 서원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완성이 곧 사회 국가 나아가 중생계의 완성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의 서원을 들어주기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자의 공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범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동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3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전

벽화를 통해 경전을 읽는다

경전의 구절이나 내용에 맞게 벽화나 사진을 결합시켜 경전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완전 칼라판

모든 사진을 칼라로 처리해 경전을 더욱 알기 쉽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천수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근간) 불 · 보살의 원력과 발원문 (근간)

학림 역음/신국권 칼라화/값 각권 4,500원

500대원 석가모니불 지장경 장수멸죄경

운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반드시용으로 좋습니다